

전남 김·다시마 작황 호조 1분기 어업 생산량 늘었다

양식업 10만9000t 등 11만t 늘어...생산량 전국 70% 차지해도 매출 비중은 41% 불과

올해 1분기 전남지역 수산물과 축산물 생산량 모두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 생산량은 김과 굴 등 양식어업 작황 호조에 힘입어 11만t 넘게 늘었다.

25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전남 어업생산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어업 생산량은 86만1111t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74만9799t)보다 14.8%(11만1312t) 증가했다.

이는 도내 5년 평균 생산량 78만2496t과 비교해도 8만t 가량 늘어난 수치다.

어업별로는 김, 다시마 등 천해 양식어업이 82만9604t으로 15.2%(10만9339t), 조기 등 일반 해면 어업이 2만9195t으로 3.7%(1038t), 내수면 어업이 2313t으로 68.0%(936t) 늘었다.

주요 품종별로 잡조기는 근해저장 출어가 늘면서 28.1%(202t)가 더 많이 잡혔다.

젓새우류와 멸치는 어획 감소, 조업일수 축소 등으로 54.6%(-280t), 14.2%(-676t) 줄었다.

김류(14.8%·3만5991t), 다시마류(3.0%·1122t

), 굴류(25.4%·4983t) 등 바다 양식 품종은 모두 늘었는데 채묘 시기에 태풍 피해가 없었거나 양식시설 증가, 작황 호조 등이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됐다.

내수면 어업의 주요 품종인 뱀장어와 메기, 향어 등도 입식량 증가에 따른 출하 확대로 생산량이 각각 95.6%(920t), 43.8%(7t), 312.9%(97t) 늘었다.

올 1분기 전체 어업 생산량은 127만t으로, 전남 생산량은 67.6%를 차지하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전남에 이어서는 경남이 19만t을 생산하며 15% 비중을 나타냈고, 부산(5.5%), 충남(3.5%), 전북(2.5%), 경북(1.5%), 경기(1.4%), 제주(1.3%), 강원(0.8%), 인천·울산(각 0.5%) 등 순이었다.

전남은 전국 어업생산량의 10분의 7을 차지하지만 생산금액(매출) 비중은 전국의 41.2%에 불과했다. 올 1분기 전남 어업 생산금액은 7484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억원 가량 증가했다.

전국 생산량의 15% 비중에도 머물렀던 경남 생산

금액은 3227억원으로, 전체의 17.8%를 차지했다.

전남 생산금액은 어업별로 천해 양식어업이 5647억원으로 2.5%(-143억원) 준 반면 일반 해면 어업과 내수면어업은 1473억원, 363억원으로 각각 8.0%(109억원)와 10.2%(33억원) 늘었다.

한편 전남 축산업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영향을 받은 오리류 제외 3개 축종 사육 마릿수가 늘었다.

올 1분기 전남 한우 사육 마릿수는 56만1272마리로, 전년 동기보다 4.7%(3만472마리) 증가했다. 올해 사육 수는 관련 통계를 낸 지난 2014년(50만마리) 이후 가장 많았다.

돼지 사육 마릿수도 전년보다 0.8%(9521마리) 증가한 119만1799마리로, 통계를 낸 2017년(102만마리)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닭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8.2% 증가한 2121만마리로 집계된 반면, 오리는 221만8606마리로, 전년의 반토막 수준(-44.8%)을 보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서홍·왼쪽 6번째)와 장흥군이 25일 정남진장흥 새청무쌀 베트남 첫 수출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장흥 '새청무쌀' 베트남 간다

16t 5000만원 상당

장흥에서 생산된 전남 대표 품종 '새청무쌀'이 베트남 수출길에 오른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25일 장흥군 안양면 정남진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새청무쌀 '아르미'의 베트남 첫 수출을 축하하는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베트남에 수출되는 물량은 총 16t(4kg 4000포)으로, 5000만원 상당이다.

수출업체 장대F&B를 통해 베트남 호치민시 '호치민 크레센트푸드'에 납품된다. 앞으로 호치민 크레센트푸드와 업무협약을 맺어 홍보·판매를 위한 매장도 설치할 예정이다.

아르미쌀은 단백질 함량 6.5% 이하, 완전미율

95% 이상, 순도 90% 이상의 엄격한 품질 기준이 적용됐다. 전남 10대 브랜드쌀에 8차례 선정됐고, 전국 고품질 브랜드 쌀에 2년 연속 뽑히기도 했다.

이날 수출 기념식에는 정준수 장흥군수, 유상호 장흥군의회 의장, 박서홍 농협 전남지역본부장, 박기승 농협 장흥군지부장, 강경일 정남진장흥농협 조합장, 위호복 관산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박서홍 본부장은 "정남진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과 장흥군의 협업으로 이번 쌀 수출을 이뤄낼 수 있었다"며 "전남농협은 수출확대를 위해 안정적인 고품질 쌀 생산과 신제품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전남 지역민 "경기 좋아질 것"

1년 4개월만에 소비자심리지수 100 넘어...5개월 연속 상승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향후 6개월 동안의 경기를 전망하는 소비자심리지수가 1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을 넘겼다.

25일 한국은행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5월 소비자 심리지수(CCSI)가 101.3으로 전월 대비 1.9포인트 상승했다. 이 지수는 지난해 12월(89.3) 이후 5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CCSI는 소비자동향조사 항목 중 현재 생활 형

편, 가계수입 전망, 소비지출 전망 등 6개 주요 지수를 표준화해 합성한 지수다. 지수가 100을 넘기면 2003~2020년 평균보다 경기를 낙관적으로 본다는 걸 뜻한다.

항목별로 생활형편전망 부문이 전달 94에서 96으로 올랐고, 소비지출전망(104→105), 향후경기전망(95→102), 취업기회전망(86→90) 등 대부분 항목에서 상승했다. 소비지출전망에서는 교양·오락·문화비 부문이 3포인트 오른 것이 눈에 띈다.

주책가격전망은 '보합', 물가수준전망과 임금수준전망은 각각 1포인트, 2포인트 전월보다 올랐다.

반면 가계수입전망은 96에서 1포인트 떨어진 95를 나타냈으며, 가계부채전망은 101에서 99로 떨어졌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 효과에 대한 기대감과 광주·전남 제조업계 생산 회복세에 힘입어 지역민들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내다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18일 광주·전남 도시가구 중 600가구(응답 529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2000억 돌파

광주은행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내놓은 신용대출 상품이 출시 4개월 만에 판매액 2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월 출시된 비대면 전용 중금리 신용대출 '프라임(Prime)플러스론'은 넉 달 만에 판매액 2000억원을 넘겼다.

이 상품은 은행권의 높은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중·저신용자를 포용하기 위해 선보여졌다.

비대면 전용상품으로, '머신러닝' 기법이 도입돼 평가모형에 위험(리스크) 변별력과 다양한 자료 활용이 적용됐다.

급여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언제든지 모바일(스마트뱅킹·모바일웹뱅킹)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 한도는 최대 5000만원, 상환기간은 최대 5년 이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은행업권의 중금리대출 상품을 들여다보면 우량고객 대상 판매비중이 상당한 반면, 광주은행 '프라임 플러스론'은 신용평점 830점(신용등급 기준 4등급) 이하 중·저신용자 고객 비중이 약 70%에 달한다.

현재까지 취급한 '프라임 플러스론'의 평균 금리는 6% 후반대이다. 제2금융권 대출 평균금리와 비교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대출비교 플랫폼에서도 금융소비자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고 광주은행 측은 설명했다.



송중욱 행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금융지원이 절실한 고객들에 적시에 필요한 금융 솔루션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금융소비자의 상환능력을 철저한 시장분석 및 최신 평가기법을 통해 파악해냄으로써 기존 상품과 차별성을 뒀으며 앞으로 제1금융권 중금리상품의 새로운 모델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171.32	(+27.02)
↑ 코스닥	962.07	(+13.70)
↑ 금리(국고채 3년)	1.142	(+0.026)
↓ 환율(USD)	1122.00	(-5.10)

조달청, 중기 혁신제품 자금 지원 대기업과 상생제품에 인증마크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개발한 제품은 앞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인증마크를 받는다.

조달청과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제1차 공공조달정책협의회'를 열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제품에는 별도의 인증마크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3월 양측이 '혁신조달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첫 번째 회의다.

두 기관은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할 수 있는 중소기업 혁신제품을 발굴하고, 이중 성능 개선을 포함해 추가 기술개발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혁신제품은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는 제품 가운데 혁신성이 인정돼 중앙행정기관장이 지정한 제품이 다,

앞으로 각종 행사에서 혁신제품을 위한 별도의 홍보관을 운영하고 공동으로 온라인 홍보를 하기로 했다.

또 대·중소기업이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개발한 제품에 대해서는 나라장터 쇼핑몰 내에서 '상생협력제품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별도의 온라인 전용몰을 마련하기로 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